POMOS
POMOS

SIEMREAP

귀국보고

보고순서

소개

고민

활동

느낀점

#1. 소개

#1. 소개

팀원 소개

#1. 소개

캄보디아, 시엡립 소개

동남아시아 대륙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캄보디아,
캄보디아 에서도 앙코르 왓트의 유적지로 유명한 시엠립,
시엠립에서도 빈민촌이 존재하는 프놈프라움 마을,
그곳이 바로 우리가 활동하는 **마을**이다.

우리 기관 소개

다일공동체
DAIL community

7개 팀 중 시엠립 팀만 유일하게 호스트기관이 YMCA가 아닌 다일공동체로 파견 된다

다일공동체는
‘다양성 안의 일치’ 라는 모토 아래
기독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선교활동 및
여러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공동체이다.

특히,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는
밥퍼, 빵퍼 활동과 같은 무료급식과
무료진료, 아동결연, 배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라온아띠의 정체성 vs 공동체 속에서의 적응

어떤 가치가 우선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어려운 고민.

#1. 소개
일상생활

잦은
外
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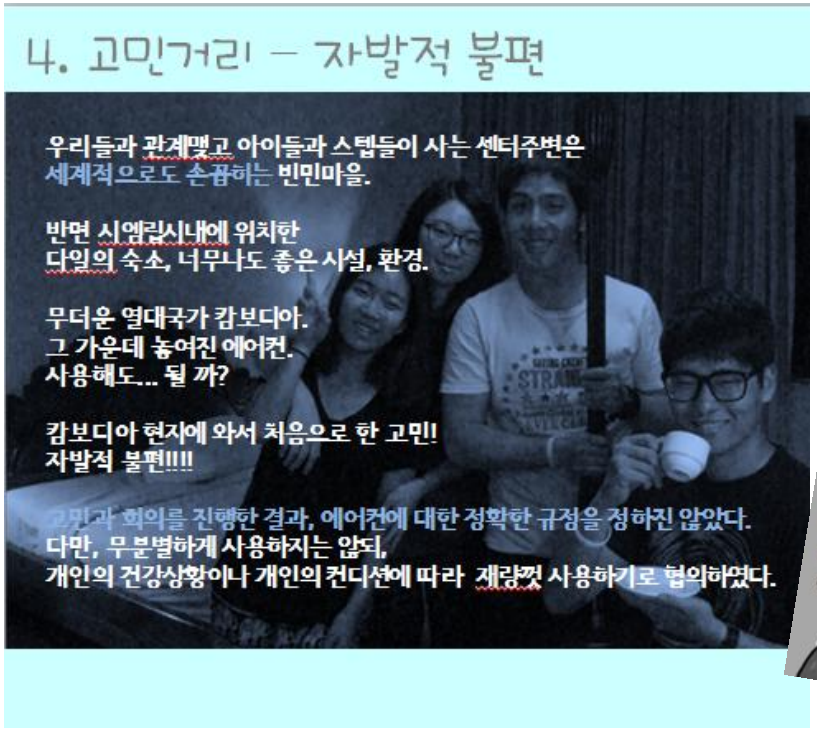
진경이는 오늘도, 쓰레기통을 뒤진다(임무분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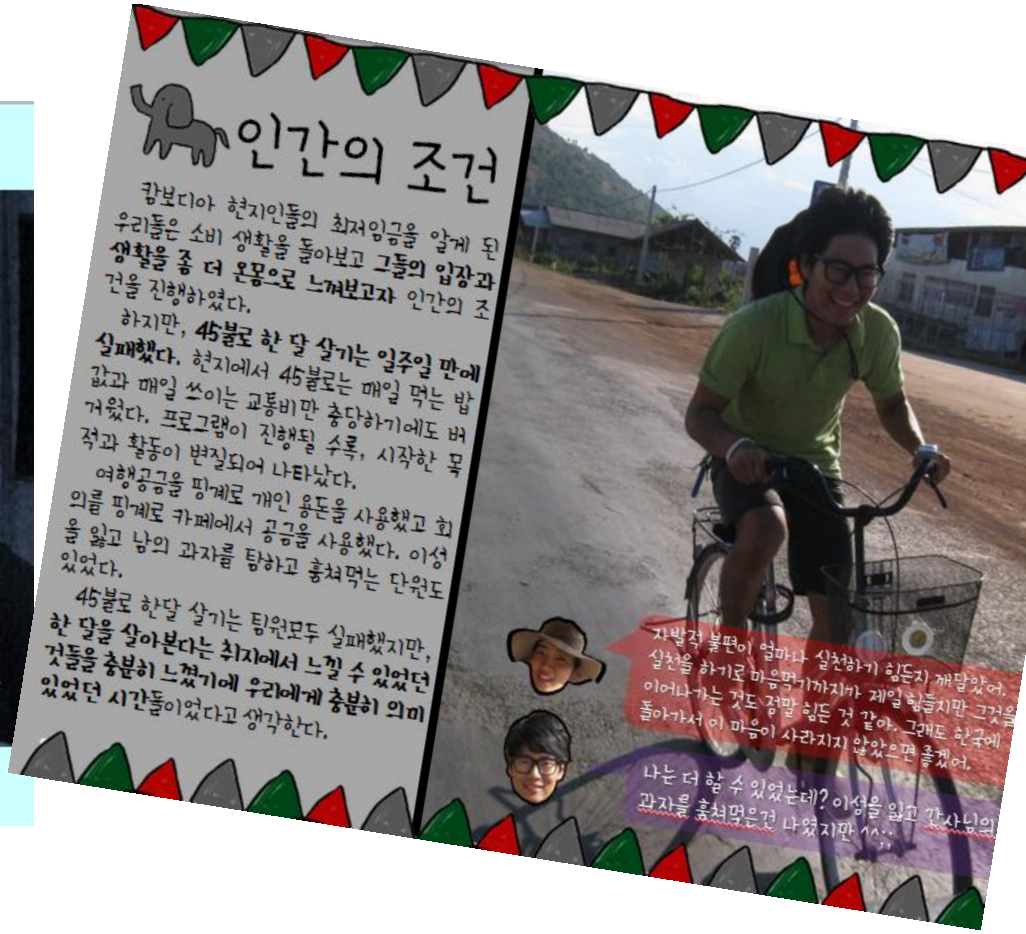
프놈끄라움에 위치한 커피빈을 아십니까?
(일과중 점심시간마다 우리의 활력소가
되는 현지식카페)

어꾼쁘레야 예수
다일이 기독교적 색채를 띄는 공동체기에,
아띠들도 매일 일과 시작전과 후 예배식 회의에 참석.
기도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눈다.

#2 우리가 했던 고민들

1. 자발적 불편


4. 고민거리 – 자발적 불편
우리들과 관계맺고 아이들과 스텝들이 사는 센터주변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빈민마을.
반면 시엠립시내에 위치한
다일의 숙소, 너무나도 좋은 시설, 환경.
무더운 열대국가 캄보디아.
그 가운데 놓여진 에어컨.
사용해도... 될 까?
캄보디아 현지에 와서 처음으로 한 고민!
자발적 불편!!!!
고민과 회의를 진행한 결과, 에어컨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정하진 않았다.
다만, 무분별하게 사용하지는 않되,
개인의 건강상황이나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재량껏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다.


인간의 조건
캄보디아 현지인들의 최저임금을 알게 된 우리들은 소비 생활을 돌아보고 그들의 입장과 생활을 좀 더 온몸으로 느껴보고자 인간의 조건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45불로 한 달 살기는 일주일 만에 실패했다. 현지에서 45불로는 매일 먹는 밥값과 매일 쓰이는 교통비만 충당하기에도 버거웠다.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록, 시작한 목적과 활동이 변질되어 나타났다.
여행공금을 핑계로 개인 용돈을 사용했고 회의를 핑계로 카페에서 공금을 사용했다. 이성을 잃고 남의 과자를 탐하고 훔쳐먹는 단원도 있었다.
45불로 한달 살기는 팀원모두 실패했지만, 한 달을 살아본다는 취지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들을 충분히 느꼈기에 우리에게 충분히 의미 있었던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한다.
자발적 불편이 얼마나 실천하기 힘든지 깨달았어. 실천을 하기로 마음먹기까지가 제일 힘들지만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도 정말 힘든 것 같아. 그래도 한국에 돌아가서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더 할 수 있었는데? 이성을 잃고 감사님의 과자를 훔쳐먹은건 나였지만 ㅅㅂ...

2. 쓰레기 (마을 탐방)

2. 3월의 활동 – 마을 탐방

쓰레기 축제와 관련 하여 우리들은 마을 탐방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오전 중에 시간을 내서 프놈끄라움 마을을 살펴서 들여다 보았다.

살짝 들여다 본 마을은 쓰레기 통이 없었고, 여기저기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널부러져 있었다. 집집마다 자기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고자 했던 쓰레기통은 없었다.

이 쓰레기들은 한 민간업체에서 돈을 받고 수거해 간다고 한다. 우리가 본 내용을 토대로 쓰레기 축제를 계획하게 되었고, 계획 중이다.

3. 단기 봉사자들의 행동

4. 고민거리 – 봉사자 지침사항
간혹 센터에 방문하는 일부 봉사자들이 봉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
나, 아이들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를 보고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방문객의 후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 기관의 특성상, 봉사자들
게 현지인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지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
자 지침사항을 제시하여 방문 봉사자들에게 사전에 내용을 숙지시
제안은 어떨까?
Plan of May
봉사자 가이드라인 제시
지난달 봉사자 지침사항에 대해 고민했던 시엠리 팀.
공, 그 고민을 구체화하여 단기봉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
예정이며 단임고등체에서 허락한다면, 단기봉사자들에게
보여줄 포스터/UCC제작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자원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일부 봉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행동, 태도는 다음과 같
1. 아이들을 불쌍하다고 여기는 생각과 그로 인한 여타 행동들
- 돈을 주는 행동
- 특정 아이들에게만 물품(사탕, 과자 등)을 나눠 주는 행동
-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행동
2. 관광하듯 밥 먹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는 행동
3.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동
4.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

#3 활동

고정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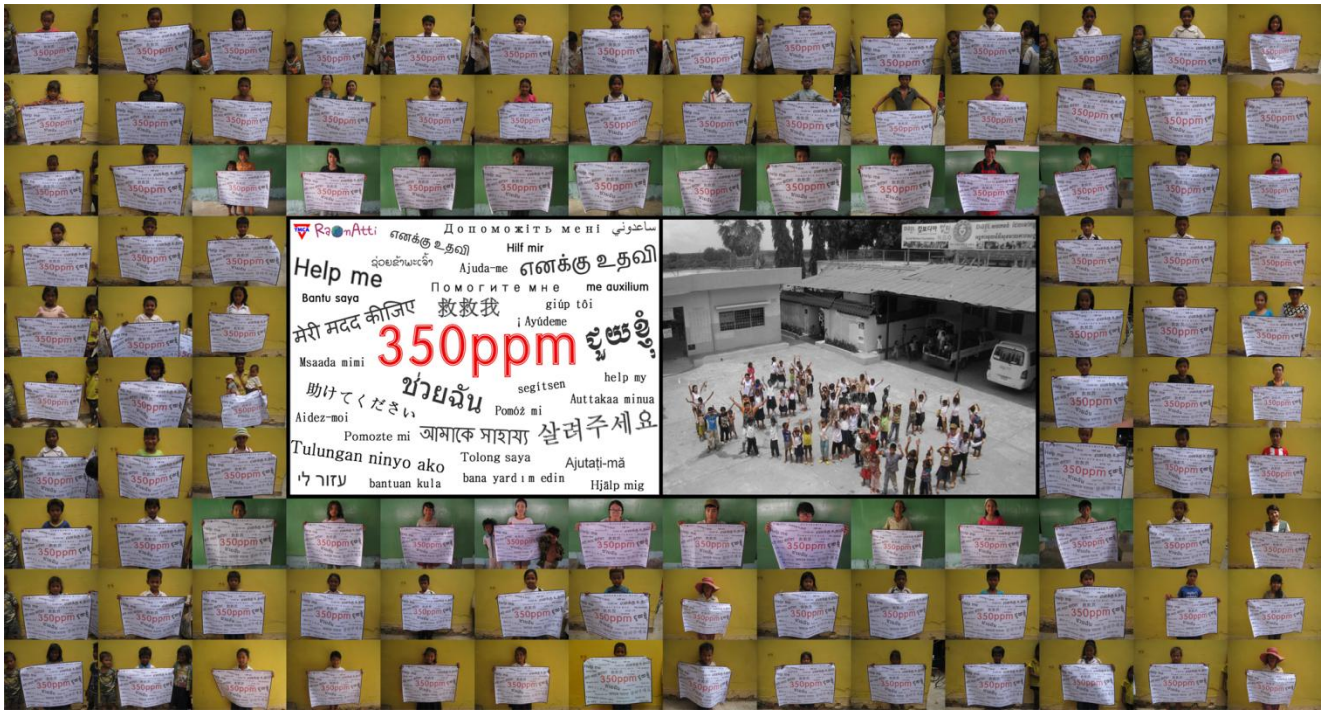
#3 활동

밥퍼	빵퍼	크메르어수업	스텝 한국어	한글학교
청소 재료 다듬기 반찬 만들기 배식 설거지 * 밥퍼와 빵퍼는 시간 날 때 봉사자 만당한다 안내	빵 만들기 포장 조리 후 설거지	월, 수, 금 2시-3시 리비다 선생님과 함께 수업	수준별 4개반 아띠1명당 1개반씩 맡고 있음	토요일9시-12시 현지교민 대상 사회, 국어 수업 + 방과후수업(사물놀이반, 기

1. 쌀라아띠

2. 환경송

3. 350PPM 캠페인


RaonAtti
Допоможіть мені
ساعدوني
எனக்கு உதவி
Hilf mir
Help me
Ajuda-me
எனக்கு உதவி
Помогите мне
me auxilium
Bantu saya
救救我
giúp tôi
मेरी मदद कीजिए
¡Ayúdeme
350ppm
Msaada mimi
help my
ช่วยฉัน
segitsen
助けてください
Auttakaa minua
Aidez-moi
Pomóż mi
Pomozte mi
আমাকে সাহায্য
살려주세요
Tulungan ninyo ako
Tolong saya
Ajutați-mă
עזור לי
bantuan kula
bana yardım edin
Hjälp mig

4. NGO무빙스쿨

5. 제2회 백일장

6. 홈스테이

마을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
그들과 좀 더 어울리고자 시작한 홈스테이!

다일공동체 원장님의 의견에 따라
남자는 2주, 여자는 1주간의 홈스테이를 진행하여
모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느낀점

#4